



용기

학생여중 1-4 김보은

“드르륵, 탁”

조용한 수업 시간 속 문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곳으로 고개를 돌리니 은혁이가 서 있었다. 그것도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한 손은 머리를 긁적인 채로. 순간 적막이 흘렀다.

“...죄송하다.”

은혁이는 그 말을 끝으로 아무렇지 않게 자리로 걸어갔다.

쿵쿵. 그런데 은혁이가 지나가자 은은한 담배 냄새가 났다. 나는 설마 하는 생각으로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다. 은혁이는 학교에서 소문이 날 만큼 착하기로 유명하다. 잘생겼는데, 인성까지 바르다니 뭐, 그런 얘기들 말이다. 학교에서 소문이 자자한, 그 은혁이가 담배를 피웠을 리 없다. 특히나, 난 은혁이와 못 볼 꼴도 다 본 소꿉친구이다. 그 순둥순둥한 애가? 그랬을 리 없다. 곧, 학교가 마치는 종이 울렸고, 나는 곧바로 은혁이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은혁이는 날 보지도 않은 채 복도를 나섰다. 내가 은혁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은혁이는 빠른 발걸음으로 교무실에 들어갔다. 교무실을 슬쩍 보는데, 은혁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혼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은혁이가 교무실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것

같다. 솔직히 걱정은 되었지만, 차마 은혁이와 눈을 마주치고 얘기할 겨를이 나지 않았다. 결국, 교무실을 지나치고 학원으로 향했다. 오늘 학원에선 중간고사가 끝난 기념으로 과자 파티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나도 재미가 없었다. 어찌저찌 과자는 입에 넣었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없었다. 머릿속은 은혁이로 차있었다. 생각을 멈추려 하면 할수록 온갖 새로운 생각들이 계속 생겨났다. 정말 담배라도 피우는 건 아닐지, 일진 무리에 들어간 것은 아닐지... 여러 물음표들이 날 덮쳤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샤워를 거칠게 하곤, 책상에 앉아 손을 짹 내리쳤다.

‘내일...은혁이한테 말...해 볼까?’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결국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눈치만 본 채, 내 마음만 조마조마해질 뿐이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나와 은혁이의 사이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같이 있으면 어색할 정도다. 학교에서 은혁이는 이제 잘 보이지도 않는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학원이 끝난 후 집으로 가는데 멀리서 나무 앞에 앉아 웅크리고 있는 은혁이가 보였다. 나는 그냥 들어갈까 하다 요즘 은혁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모의 말이 생각났다. 결국 은혁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야, 고은혁.....”

내가 은혁이의 어깨를 툭툭 치자, 은혁이는 웅크리고 있던 몸을 펴고, 나를 반히 쳐다보았다. 은혁이는 좀 놀란 표정이었다. 하긴, 거의 한 달 동안 말도 안 섞은 내가 갑자기 말을 거니 놀라는 게 당연하다. 그것도 이런 꼴 앞에서. 난 숨을 한 번 고른 뒤, 은혁이

에게 물어보았다.

“너, 왜 여기 있어? 요즘에 뭘 하고 다니길래……. 너 이모도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아? 연락도 안 받고…….”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힘든 게 있으면, 말이라도 하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인데. 생각해 보면, 은혁이와 멀어지는 건 원하지 않았다. 애초에 애와 멀어지는 건 상상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떨어져 있는 우리 사이를 보고 눈물이 났다. 포르륵, 포르륵. 내가 눈물을 흘리자 은혁이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곧, 내 어깨를 살포시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은혁이의 품 안에서 아이가 엄마를 찾는 듯 껴끼이 눈물을 쏟았다. 흐르는 눈물이 멈추자, 난 고개를 들곤 은혁이를 쳐다보았다. 은혁이의 눈시울도 열게 붉어져 있었다. 나는 은혁이를 바라보며 픽 웃었고, 은혁이도 날 보며 피식 웃었다.

나는 은혁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엄마는 음료수 두 잔을 타 주시며 우리 둘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다. 그 방에서 은혁이의 얘기를 들어보니, 은혁이는 지금 한 일진 무리에 들어가 있고, 그 일진들이 어느 날부터 자신을 괴롭혔다는 내용이였다. 나는 은혁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씁쓸했다. 일진들이 은혁이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어떻게 괴롭혔는지 안 들어도 알 것 같았다. 난 한숨을 푹 쉬며 은혁이를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은혁이도 내 마음을 알았는지, 용기 내서 일진 무리에서 빠져나오겠다고 했다. 그다음 날부터, 은혁이는 나의 도움을 받으며 일진들과 최대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일진들과 거리를 멀리하니, 다행히 몇 주 채 되지 않았을 때 일진 무리들은 더 이상 은혁이를 찾지 않았다.

중간중간 난관이 있었지만,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잘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나와 은혁이는 사이가 더 가까워졌다.

“야, 고은혁! 마라탕 먹으러 가자~”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어떤 일이든 용기가 없으면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반대로 용기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도전해 보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새기게 되었다. 오늘도 난 은혁이와 나란히 걸어간다.

